

## 어명소 2차관, “GTX-A 개통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강조

### - 10일 「삼성~동탄」 성남역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해빙기 안전관리 당부 -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월 10일(금) GTX-A노선(삼성~동탄) 성남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개통과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어 차관은 성남역 공사현황을 점검한 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작년 12월 차량출고에 이어 터널 관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24년 상반기 적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 “빠르고 편리한 GTX 서비스가 수도권 30분 출퇴근이라는 교통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통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24년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또한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중점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 “해빙기 안전에 취약한 가시설 등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GTX 개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중인 현장 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3. 3. 10.

국토교통부 대변인